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늘푸른사랑방이 예배를 주관합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바자회가 5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교육관 증축공사와 시설보수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바자회 기증물품은 다음 주 5월17일(주일) ~ 22일(금) 까지 받습니다. 자연예배당 현관 안쪽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꾸러기학교 봄 여행이 5월 12일(화)~13일(수)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어린이학교 5월 여행이 5월 13일(수)~14일(목)까지 서울대공원 자연캠핑장에서 있습니다.
- 5월 28-30일(목-토)에 선교공동체에서 국내 선교지 봉사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임상희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이시온 청년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동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19 호

2026년 5월 1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봄날의 초대장

헬리콥터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헬리콥터맘은 학업, 친구관계, 진로 등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헬리콥터처럼 머리 위에서 맴돌며 과잉 보호하고 간섭하는 부모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고 성인이 된 뒤에도 취업, 연애, 직장문제까지 개입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노우플로우(snowplow)맘은 들어보셨나요? 요즘 헬리콥터맘에 이어 새롭게 생겨난 표현인데요. 스노우플로우는 겨울철 도로 위의 눈을 미리 치워 길을 만드는 제설차량입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로우는 헬리콥터맘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아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미리 다 치워버립니다. 눈을 치워 길을 만드는 제설차처럼 우리 아이가 기분 나쁘면 안되고, 트라우마 생기면 안되고, 누가 우리 아이 혼내면 안되기에 아이가 어려움이나 문제상황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는 양육방식을 표현한 말입니다.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초등교사 모임에서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성적이나 기록을 수정해달라. 우리 아이와 맞지 않으니 담임을 교체해달라. 휴대폰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의 훈육 방식이 아이의 정서적 학대로 보여진다면 교사에게 보름동안 250통의 문자를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부가 약하니 창문쪽에 앉히지 말아달라.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니 첫 번째로 시켜달라. 미세먼지 안 좋은데 체험학습은 왜 가냐 등 그 외에도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최근 교육부는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 받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 대표 창구로 일원화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주전, 사랑방공동체학교 졸업생 어머니 한 분이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연히 학교에 올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 선생님들 드시라고 음료와 파배기를 사오려고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기 위해 오셨

습니다. 한 시간 수업을 마치고 가니 따뜻한 파배기와 커피가 놓여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학교 학부모로 있을 때 졸업하고 학교에 커피 한 잔 들고 찾아오는 선배 학부모를 보며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졸업하면 그래야지 했는데 매번 마음만 있다가 우연히 들리게 되어 그랬다라고 하시며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찾아가도 그 곳에 있을 학교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마음에 위안이 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는 사랑방공동체의 3가지 창립정신 중 '교육목회의 실현'을 위해 1992년 꾸러기학교를 시작으로 34년 동안 교육선교의 사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뒤쳐지는 삶이라고 치부될 수 있습니다. 또 여행은 왜 가냐? 밖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교실에만 있게 해라. 자외선이 강한데 노작은 왜 하나 등 수없이 많은 민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허락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는 견본인 공동체 안에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행복해야 하늘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에 하던 바자회를 봄으로 당겨서 합니다. 또 매년 선교 바자회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학교, 우리 공동체의 공간 증축과 보수를 위해서 합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교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사랑방공동체 교육 선교의 사명에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준비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방공동체를 세우시고 꿈꾸게 하셨던 교육 선교의 사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복음을 위한 사역에 초대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
 <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92 310 / 542
 기도 :
 성경 : 로마서 4장
 제목 :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믿음의 의

1. 내용: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What)
 <문단구분>
 1~8절 아브라함의 칭의
 9~12절 할례와 무관한 칭의
 13~25절 믿음에 근거한 아브라함 언약
2. 의미: 믿음이 핵심이다. (Why)
 1)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다.
 2) 믿음이 먼저이고 할례는 믿음을 입증하는 의미이다.
 3)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참 믿음이다.
3. 적용: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자. (How)
 1)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2) 우리 안에 있는 할례의 자랑을 버리자.
 3)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자.

안녕하세요. 멧쟁이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임채경입니다.
 약 110km를 걷는 무진장 힘들었던 도보여행을 마침내 끝내고 일주일의 포상휴가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 이걸 위해 도보여행을 버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작년에 미국에 있느라 한번 빠졌던 걸 제외하면 이번 도보여행은 네 번째입니다. 도보여행은 다녀온 경험이 많을수록 다음번에 더 가기 싫어지는 것 같은데,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냥 내년에 또 가기 싫다는 말입니다. 도보여행 중, 끝없이 걸으면서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부터 시작해 막판엔 나를 이 학교에 보낸 부모님과 하나님까지 별에 별 것들을 다 원망해봤는데 결국 다 덧없는 짓이었다는 걸 도보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보다 어리던 후배들이 도보여행 중 하하호호 웃으며 걷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엔 약간 알밋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니 존경스러울 정도네요. 저는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봤자 제 삶에 도움되는 건 크게 없다는 걸 아는데도 이게 맘대로 되진 않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그게 만약 당신이라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여덟 먹은 애가 삶에 대해 논하는 게 우스워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1학기에 가장 힘든 여행을 끝내고나니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이 가볍습니다.

푸른꿈사랑방 임채경 학생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레위기 19 : 2b-3 인도자
44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6 : 37 인도자
578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디모테전서 5 : 1-5 설교자
579 그루터기사랑방
“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218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한호남 정승희 / 봉헌위원 : 정혜욱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아버이에게 보답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 이웃의 연결고리.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을 넘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제 5계명입니다.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와 어근이 같습니다. 이는 부모를 인생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대접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뿌리)가 이웃 관계(열매)로 확장되는 핵심적인 연결 지점입니다.

대리 권위자와 순종의 자세. 부모는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가르치는 대리적 권위자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며, 이는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맹목적 복종을 넘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비중 있게 대하는 성숙한 공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효. 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진 신앙의 대가족입니다. 바울은 교회 어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권면하며, 특히 연로한 분들의 소외감을 공경의 정성으로 채울 것을 당부합니다. 부모와 어른들을 정성껏 대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종교적 의무이자 신앙의 실천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차현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연휴 후 5월 6일에 광릉수목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점점 초록으로 무성해가는 나무와 풀 또 곱게 핀 꽃들을 멀리 또 가까이 두고 걸다가 뛰고 무언가를 발견해서 멈추어 살피곤 한 하루였습니다.

꼬물꼬물 작은 애벌레를 많이 만났고 암컷 사슴벌레와 실잠자리, 엄청 많은 올챙이 떼, 어렵게 발견한 거북이 그리고 개구리를 잡아 입에 물고 있는 왜가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왜가리가 개구리를 꿀꺽 삼키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 만나는 사이 꾸러기 세 친구들의 수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이 좋아하는 역할놀이를 길을 걸으며 계속했지요. 티격태격 다툼도 잦았지만 곧바로 화해도 잘 했습니다. 만보도 훌쩍 넘게 걸었던 나들이 다음 날도 씩씩하게 학교에 와서 공동체를 한 바퀴 둘러보는 산책을 제일 먼저하고 목요일과 금요일도 잘 지냈습니다.

꾸러기학교에 못 오는 토요일과 주일을 많이 아쉬워하는 우리 꾸러기들, 푸른 5월 마음껏 즐겁고 씩씩하게 뛰어놀기 바랍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연휴를 끝내고 수요일 학교에 온 친구들은 여러 곳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좋아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하는데 캠프 조원끼리 모여 조장을 중심으로 캠프에서 먹을 요리 재료를 나누기도하고, 스승의 날 선생님들께 어떻게 할지 얘기도 하며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LTSS 시간엔 캠프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을 해 보았습니다. 상추를 씻으며 재료 씻는 법, 가스를 끼우며 점화해 보며 버너 사용

배움과 가르침

법을 배우고, 감자를 깎아보며 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정성 담아 편지도 썼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예쁜 편지 안에는 쿠폰(안마해 드리기, 동생 돌보기 등)이든 친구도 있고, 예쁜 꽃을 붙인 친구도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13(수)~14(목)까지 1박2일로 서울대공원캠프장을 갑니다. 가자마자 밥하고, 간식 만들고, 뒤돌아서 또 밥하고 할 터인데~ 그래도 아이들은 캠프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고 도와주며 한 가족이 되길 바라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꿈처럼 달면서도 또 지나고 나니 찰나와도 같았던 가정학습 기간이었습니다. 도보여행이라는 고된 여행의 피로를 잊고, 가정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학기는 이때를 기점으로 여름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시금 일상생활에 맞춰가면서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로 내면과 육체를 연마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다시 뛰어드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110km 완주를 해낸 멋쟁이들이라면 자긍심을 갖고서 잘 해낼 수 있으리란 믿음이 갑니다. 등교하고 나면 일주일간의 회포를 풀면서 밤마다 두런두런 이야기들을 나누겠지요. 중간 단계를 훌륭하게 통과해낸 멋쟁이들의 새로운 출발이 기다려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차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4학년들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잘 적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영어 공부에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속에서 많은 성장과 성숙이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밭에 숨긴 보화를 캐는 기쁨”

멤버의 서약은 청빈과 순결, 순종이라는 전통적인 수도원 서원 정신에 따라 이루어진다. 청빈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소유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 단순한 삶을 살기로 서원하는 것이고, 순결은 성의 순결을 유지하고 결혼을 했다면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어진 결혼의 결합을 충실히 지킬 것을 서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그리스도와 형제자매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서원하고, 어디든 어떤 일이든 요청받은 대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조인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손님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다.

“저는 가진 게 많아서 조인 못할 것 같아요.”

한 손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웃으면서 답했다.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가진 걸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 그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근심하고 돌아갔다지만, 사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이점에 있어 내가 부자 청년이 아님을 감사한다), 내가 가진 생각과 의지를 겸손하게 형제들에게 내려놓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나의 것이 올라오고 어느새 형제들을 판단하게 된다. 사실 이 서원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에버하르트 손녀인 보결 할머니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네, 그렇지만 아주 놀라운 삶이지!”

그렇다. 이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삶이다. 농부가 남의 집의 밭을 갈다 밭 속의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샀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다. 생각해 보라! 밭 속에 수천억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 자기가 가진 천만원의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 수천억의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지 않겠는가? - 이상한 나라 하나님나라 중에서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365장, 397장

성 경 : 시편 139편 1-18절

말 씬 :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학살>

나이지리아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학살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학살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나이지리아 교회 공동체들에게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 때문에 떠도는 난민들에게 적절한 보호가 있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

세상의 악한 흐름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신앙을 가지고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1) 교육관 증축이 안전하게 진행되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2) 바자회 준비와 진행을 위해

3) 교회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어린이날을 포함해 휴일이라 공동생활 식구들도 공동식사도 쉬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멋쟁이학교가 휴업을 하면서 교사인 식구들은 간만에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관 증축과 농사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년의 큰 농사인 고추와 깨를 심었고 고구마도 심었습니다. 감자는 이제 제법 자라서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점점 넉넉히 채워지는 밭을 보면서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 장영미 전도사 >